

올해 세수 21조 덜 걷혀...3차 추경에 나라살림 98.1조 적자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걷힌 총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21조원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출은 38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돈(세수)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는 주는데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능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원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7월 달 부가가치세 납부와 앞서 이뤄졌던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분이 들어오며 적자폭은 다소 축소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수입은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189조4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1~7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발생한 세수 감소분(-9조2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000억원)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실제 국세수입 감소분은 1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60.3%(2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64.5%-결산기준)보다 4.2%p 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진도율(63.8%)과 비교해도 3.5%p 낮았다.

법인세 진도율이 52.7%로 작년보다 8.9%p 나 하락했다. 소득세는 55.3%로 6.9%p 낮아졌다.

지난 7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5조

국세수입 168.5조 그쳐...전년 동기 대비 20.8조 감소

7월 부가세+세정지원분 들어오며 재정수지 흑자 전환

국가채무 781조원...3차 추경으로 전월비 16.7조 급증

기재부 "재정수지·국가채무, 정부 전망 수준에서 관리"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이달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조원 감소한 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총 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국세는 7월에만 4조1000억원이 걸렸다. 전년보다는 1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점, 이 가운데서도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 일부분(3조6000억원) 납부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7월 총국세는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7월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13조5000억원 감소한 2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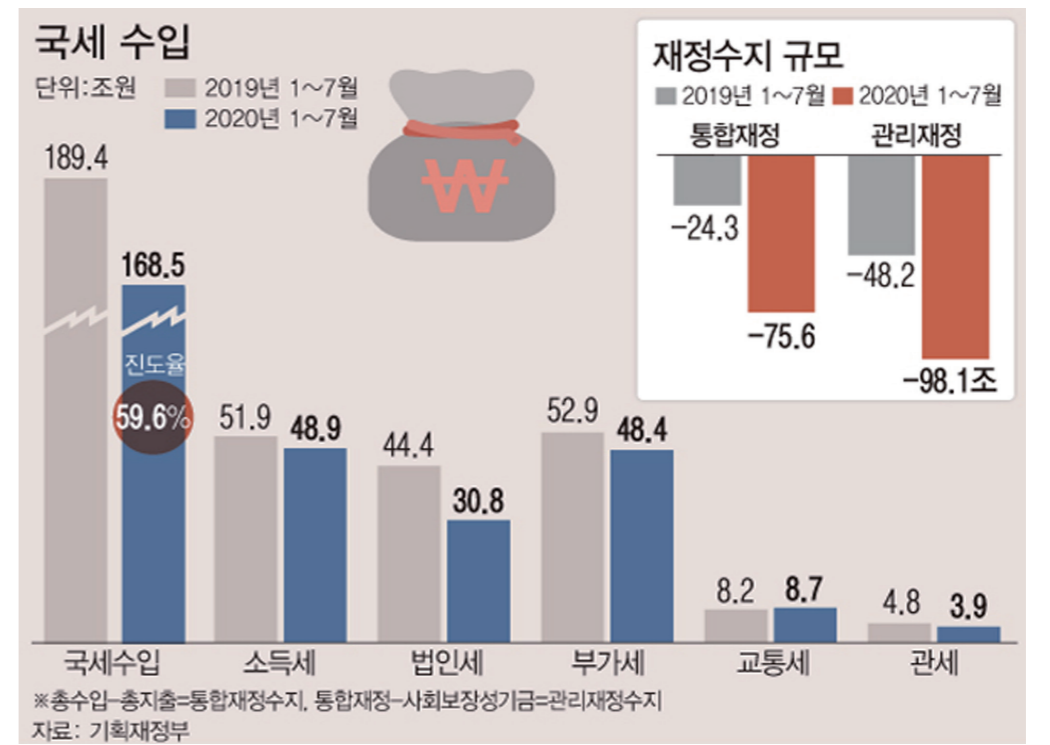
7월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집행에 따라 전년보다 6조4000억원 증가한 4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7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늘어난 35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4조4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6월 28조7000억원 적자에서 큰 폭의 반전이 이뤄진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12조4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6월에는 적자폭이 32조6000억원에 달했다.

1~7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5조6000억원, 98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다가 7월에 멈췄다.

3차 추경이 이뤄지면서 7월 말 기준 국가채



무는 781조원으로 전년보다 16조9000억원 급증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6조2000억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황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8조8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22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71.7%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0.1%p 하락한 수준이다. 중앙부처가 연간 계획 대비 73.2%인 190조8000억원을, 공공기관이 63.4%인 30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7월 재정동향과 관련,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특성 및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3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전남도, 연 13조원대 세포치료제 글로벌시장 선점 노린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900억 전남 세포치료 산업 '청신호'

전남도는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 13조원 규모의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바이오의약 분야 블루오션 시장인 암, 치매 등 희귀난치 질환의 세포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률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포치료 연구를 지원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신약 개발기간을 최소 3~4년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포치료제 개발을 선점해 세포치료제 글로벌 허브를 만들겠다는 전남도의 장기 플랜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암, 치매 등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첨단약품이다.

세포치료제 세계시장은 오는 2025년 120

억 달러(약 13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40%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는 이같은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세포치료분야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포치료 기반 차세대 신약 소재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전남대, 제주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39억 원을 투입해 줄기세포 유래 난치성 질환 신약과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또 지난해 2월 세포치료제 벤처기업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을 지원한 200억 원 규모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00억 원 규모 '질 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지난 5월 암과 치매 등 희귀 난치병 면역 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론타워 역할을 담당할 460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국가 면역 치료 플랫폼 구축사업'도 화산백신산업특구에 유지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화산백신산업특구에는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를 비롯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산전남대병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GC녹십자 등이 입주해 전국 유일의 전주기 바이오의약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세포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향후 유전자치료제와 조직공학체제 등 첨단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재생의료 세계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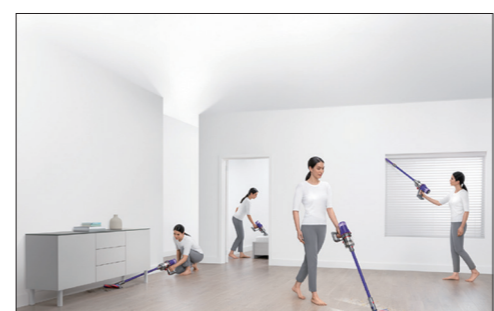
아울러 세포치료제 개발과 재생의료를 특화 육성함으로써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 유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남도의 세포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국가적으로도 희귀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가 바이오의약 산업의 밸류체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기자

다이슨 "1.9kg 청소기, 한달체험 후 무료 반품 가능"

'다이슨 디지털 슬림' 30일 체험 한시적 진행



다이슨은 청소기 '다이슨 디지털 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30일 체험 후 무료 반품을 할 수 있는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다이슨 디지털 슬림은 지난 7월23일 출시된 무선 청소기로 1.9kg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다이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9월 1일부터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이슨 디지털 슬림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을 수령 후 30일 내에 무료 반품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서비스는 다이슨 디지털 슬림 제품 라인인 다이슨 디지털 슬림 플러피, 디지털 슬림 플러피 플러시, 디지털 슬림 플러피 프로 세 제품에 대해서 진행된다.

30일 무료 체험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하며, 사용 후 반품을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 혹은 카카오프러스 친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다이슨 코리아 관계자는 "다이슨 디지털 슬림의 가벼움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러한 결정은 다이슨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슨 디지털 슬림은 LCD 스크린, 5단계 필터레이션 시스템 및 강력한 청소능력을 유지하면서도 1.9kg의 가벼움을 유지한 제품이다.

김미희기자

韓 조선업계, 8월 세계 선박 수주 1위 차지...中과 격차 벌려

전세계 선박 발주 86만CGT 중 한국 63만CGT...두 달 연속 1위 차지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다.

8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전세계 선박 발주는 86만CGT(36%)로 이 중 한국이 63만CGT(23%, 73%)를 수주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중국 21만CGT(12%, 24%), 베트남 2만CGT(1%, 3%) 순이다.

하지만 1~8월 글로벌 누계 수주는 812만CGT로 전년 같은 기간 1747만CG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8월 말 전세계 수주잔량 6919만CGT 또한 2004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상반기 수주 부진의 여파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올해 1~8월 국가별 누계 수주 실적은 중국 437만CGT(201%, 54%), 한국 239만CGT(75%, 29%), 일본 68만CGT(43%, 8%) 순이다.

선종별로 살펴보면, S-Max급 유조선은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소폭 감소했다.

초대형 유조선(VLCC), A-Max급 유조선, 벌크선 및 대형 LNG선 등의 발주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전세계 수주잔량은 7월 말 대비 소폭(-74만CGT, 1%) 감소한 6919만CGT이다. 중국(-45만CGT, 2%), 일본(-17만CGT, 2%), 한국(-2만CGT) 순으로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역시 일본 -477만CGT(34%), 중국 -303만CGT(11%), 한국 -205만CGT(10%) 모두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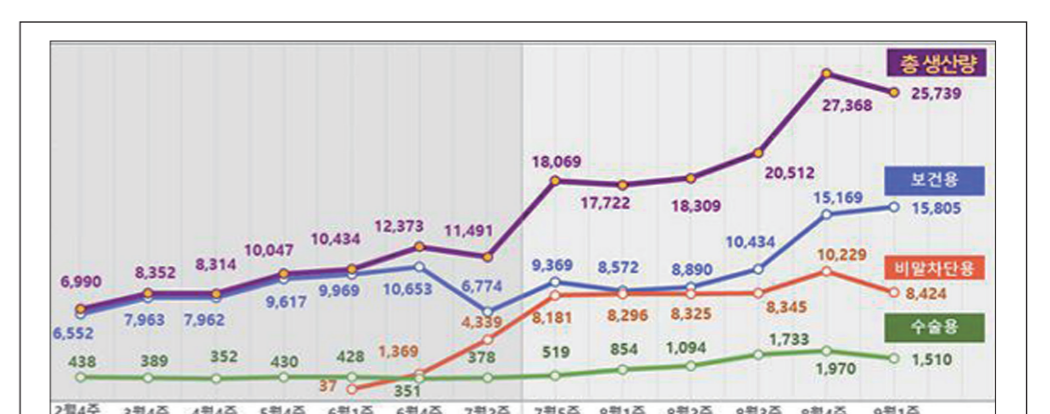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2547만CGT(37%)에 이어 한국 1915만CGT(28%), 일본 934만CGT(14%) 순이다.

한편, 수주잔고 6919만CGT는 2004년 1월 6806만CGT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이다.

8월 클라스 신조선가치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127포인트를 기록했다. 선종별 선가 추이를 살펴보면 LNG선, 컨테이너선, 벌크선(Capesize)은 지난달과 동일한 반면 초대형 유조선(VLCC), S-max 유조선, A-max 유조선은 소폭 하락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상반기에 극심한 수주절벽을 겪었으나 6월 이후 주력 선종인 LNG선, VLCC 등 가스선 발주가 재개되면서 수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9월 이후부터는 모잠비크, 러시아 등 대형 LNG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지난주 KF마스크 생산 ↑ ...1억5805만개

지난주(9월 1주) '보건용 마스크(KF) 생산은 증가한 반면, '비발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생산은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미세입자 차단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호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주(8월31일-9월6일) 의약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2억 5739만개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말한다. ▲보건용 마스크(KF) ▲수술용(넬탈) 마스크 ▲비발차단용 마스크가 해당한다. 미세입자 차단력은 KF94, KF80, KF-AD·수술용 순으로 뛰어나다. 호흡은 비발차단·수술용, KF80, KF94 순으로 숨쉬기 편하다. 이 중 보건용 마스크는 1억5805만개로,

전 주 보다 636만개 늘었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일에는 하루 최대 생산량(2884만개)을 갱신했다. 반면 비발차단용 마스크(8424만개)는 1805만개, 수술용(넬탈) 마스크(1510만개)는 460만개씩 줄었다. 마스크 가격은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모두 하락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KF94)가 1200원 초반대로 낮아졌다. 비발차단용 마스크는 600원대로 진입한 이후 유사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더 낮아졌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